
강원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의원입법 · 정책 동향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제264회 임시회(2017. 5. 16.~ 5. 23) 의안 처리 목록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운영위원회 (2건)	강원도의회 오색사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운영위원장	원안
	강원도의회 기본조례안	장석삼 의원	원안
기획행정위원회 (4건)	강릉·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기획행정위원장	원안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미 의원	수정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지사	원안
사회문화위원회 (4건)	강원학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김기철 의원	수정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정동 의원	원안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재웅 의원	원안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구자열 의원	원안
농림수산위원회 (3건)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평우 의원	원안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김동일 의원 김용복 의원	수정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김용복 의원 오원일 의원	원안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경제건설 위원회 (2건)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김성근 의원	원안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	수정
교육 위원회 (3건)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최성재 의원	원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수정

제264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내용소개

▣ 강원도의회 기본조례안

장석삼 의원(사회문화위원회 무소속 양양)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의회 기본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민의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도민이 제출한 청원·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 등 의회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장석삼 의원은 “민의를 대의하는 도의회의 위상과 지위 등을 확립”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강릉·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장세국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화천2)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릉·삼척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건의안은 지난 5월6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해 피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현행 재해대책은 구호성 자금지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정부가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해지원기준 완화와 지원단가의 현실화, 재난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강릉·삼척 지역을 강타한 산불 피해는 산림피해 926ha(강릉 251, 삼척 675)와 건물 36동(강릉 30, 삼척 6)으로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총괄부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내의 공무원 위원의 수를 전체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할 것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윤미 의원은 “공정한 회의자료 작성 및 의견청취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김기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선1)



강원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과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학연구센터’란 강원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강원도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연구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서는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기철의원은 “지역학에 근거한 문화의 공유로 격차와 소외가 없는 공동체문화의 건설에 기여하고 연구할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정동 의원(사회문화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서는 강원도지사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과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동 의원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재웅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춘천5)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강원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노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돌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핵심적인 자원인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정재웅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춘천5)
- 공동발의: 구자열 의원(사회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주4)



정재웅 의원

구자열 의원

강원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지원·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법인의 사업범위를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등으로 할 것과 법인의 기본재산 및 도지사의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평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인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사업분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설립·추진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평우 의원은 “강원도 농업은 내·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고 “강원도 농업의 사회적·산업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동일 의원(강원도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철원1)
- 공동발의: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고성)



김동일 의원

김용복 의원

강원도 쌀 소비 촉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매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쌀 소비 촉진에 효과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도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일 의원은 “쌀 소비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증가 등으로 쌀 값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강원도에서 생산한 쌀에 대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고성)
- 공동발의: 오원일 의원(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동해2)



김용복 의원

오원일 의원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담당하기 위한 ‘강원도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해난 어업인이란 해상에서 조업중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강원도 지사가 회계연도마다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복 의원은 “기존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이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강원도 재정 운영의 건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최성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원주6)



강원도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서는 강원도교육감이 응급처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 할 것과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재 의원은 “최근 안전의식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학교 등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

▣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 위원장: 심영곤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삼척2)
- 부위원장: 장석삼 의원(사회문화위원회 무소속 양양)



심영곤 의원



장석삼 의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지역발전 사업과의 연계를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5월 22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심영곤의원, 부위원장에 장석삼 의원을 선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2017년 말까지이며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활동

▣ 강원도의회 재정정책 연구회(회장 원강수 의원)

■ 창립총회 개최(2017. 5. 16.)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재정정책 연구회가 5월 16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정정책 연구회는 강원도 재정시책과 건전화 방안을 연구하고 재정 악화 요인의 분석과 이를 통한 강원도민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모임이다. 구체적인 활동방안으로는 전국 지자체 및 강원도 재정여건 비교 분석, 강원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재정건전화를 도민 이익증대로 연결하는 방안마련 등이다.

강원도의회 재정정책 연구회장을 맡은 원강수 의원은 “재정정책 연구회는 강원도 현안 및 사업에 대해 재정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상황을 심도있게 조사·연구·분석해 의회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연구회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재정정책 연구회는 11명의 회원으로 지난 4월 25일 등록을 마친 바 있다.



▣ 강원도의회 다문화가정 연구회(회장 이문희 의원)

■ 다문화가정 전문가 초청 특강(2017. 5. 22.)

강원도의회 다문화가정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강원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다문화가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정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연구회 회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및 다문화교육진흥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춘천교육대학교 노경주 교수의 “모두의 행복을 지향하는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노경주 교수는 특강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한국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문화교육의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적 요소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만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열린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교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다문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문희 의원은 “강원도내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제반 이해를 돕기 위해 특강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다양한 사례의 연구를 통해 다문화지원 정책의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해 11명의 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강원도의회 지역문화 예술축제 활성화 연구회(회장 최문서 의원)

■ 강원도 지역축제의 문제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2017. 5. 23.)

강원도의회 지역문화 예술축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강원도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도 지역축제의 문제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상지대학교 진현식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훈성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들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회 회원과 강원연구원 및 강원도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진현식 교수는 “강원지역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낸 축제들은 민간주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경우 관광사업체 증가가 나타나는 등 단기간에 걸쳐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축제들의 성공을 위한 제안으로는 “민간주도의 진행과 지역주민의 생활속에 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회장인 최문서 의원은 “전반기 연구회의 활동이 현장 답사 위주로 진행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내용을 점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원도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014년 출범해 1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강원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이다.

